

군포시

지경 다지기

수리산 산신제



지경다지기

1. 전승지

군포시 일대

2. 유래 및 해설

지경 다지기란 땅을 단단히 다지는 작업성 미풍양속이다.

지경다지기는 인구가 늘고 가옥이 필요하게 되면서 필연적 현황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작업성 민속인 것이다.

이 지경다지기는 집을 짓기전에 집지을 터전을 단단하게 다짐으로써 집을 튼튼하게 짓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요즈음의 말로는 기초공사에 해당된다 하겠다. 하지만 이 지경다지기는 단순히 집의 터만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 집터를



건드림으로써 대토지신의 노여움으로 일어나는 동토작용을 막고 작업과 함께 무속적 사고를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내포되었다.

이 지경다지기의 작업 그 자체는 우리의 민속이 시대적 변화를 가져 오는데 반해 지역에 따라 특징은 있으나 지경다지기가 단절되던 20여년전 까지도 변화없이 전승되어온 유일한 우리나라의 고유 미풍양속이다.

그리고 지경다지기 전에 대토신에게 대왕고사를 지내며 지반을 단단하게 하기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경다지기는 단순히 터만을 다지는 작업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선소리꾼의 소리에 따라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하는 형태로 보아 하나의 복합적인 민속임을 알 수 있다.

3. 구 성

1) 집주인

홍현복

2) 현수막 기수

김정운, 이창열, 채홍벽, 박덕호

3) 준비위원

임병택, 양은석, 송기남, 김경택, 박상현

4) 제단준비위원

금진섭, 장봉희, 김경래, 박춘애, 김분옥
홍순례, 이선옥, 심행복, 지금선, 지현자
정경숙, 기간난, 이길순, 이혜경, 이수덕

5) 지경다지기위원

• 선소리

한장우, 홍선표, 송주선, 송수천, 이현수
정황웅, 최경식, 이수봉, 주문선, 송주남
권순주, 박근배, 최창규, 김삼문, 임창섭
이윤갑, 임병태, 한상천, 조성빈, 라상표
황인근, 유지창, 박두월

6) 햇불잡이

박명대, 김원식, 김종석, 한봉교

수리산산신제

1. 전승지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

2. 유래 및 해설

수리산(修理山) 산신제는 수리산 최고봉 태을(太乙)인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어 군포

시 산본동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이다.

산신제를 올리는 산본동은 본래 수리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산저리라 했다가 조선 말엽에 이르러 수리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산본리라 하였고 1989년 1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산본동으로 개칭되었다.

이렇듯 수리산과 산본리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수리산을 고대



로부터 신성시하여 마을의 수호산으로 삼고 산신제를 지내왔다.

수리산 산신제는 고려중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고증은 어렵고 구전(口傳)에 따르면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등 국가의 전란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되어 왔는데 일제 시대에는 마을사람들의 단결심을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산신제는 수호산인 수리산 태을봉 밑 산신제단에서 매해 음력 1월 과 7월초에 길일을 택해서 금기(禁忌)를 엄하게 지킨 후 동민들의 공동부담으로 제물(祭物)을 준비해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다.

산본리 마을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수리산 산신제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고 또 인근의 어느 마을보다 부자 마을로 된 것은 태을당(太乙堂) 주민들의 산신제를 통하여 공동의 축제로 일체감을 가지고 협동하면서 살 수 있는 성실성을 길러주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선조 대대로 이어온 산신제를 길이 후손에게 전승시키기 위하여 이 마을 출신인 이원남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수리산 산신제 보존위원회』를 조직하여 전수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오다가 장덕순 교수(서울대)의 고증을 받아 시흥군지 상임위원 이한기(필명 李承彦)의 지도로 1986년 시흥군의 전통민속으로 지정 육성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2일 경기도가 주관한 제5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화합상을 수상한바 있고 '89년에는 인기상을 받은 바 있다.

3. 구성

1) 특 징

대개의 민속놀이가 조선시대 또는 일제시

대에 그 맥이 끊겼다가 근래에 이르러 각종 문헌과 고증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데 비해서 수리산 산신제는 당우(堂宇) 및 제체(祭禮)의 형태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전래되는 전통민속축제이다.

수리산 산신제는 단순히 산신제의 범위를 넘어서 동민의 협동, 단결과 화합을 이루게 하는 건전한 민속놀이 이다.

2) 줄거리

(1) 진 설(陳設)

제단 위에 흰종이를 깔고 진설한다. 제수(祭水)를 사용하며 소머리, 우골, 우랑, 우족은 삶아서 염통, 간, 천엽은 생것으로 올린다. 과실은 귤, 대추, 밤, 사과 등을 쓰며 떡은 시루떡 한 가지로 한다.

(2) 정 열(整例)

산신제를 정결히 거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관(祭官), 축관(祝官), 집례(執禮), 당주(堂主)만이 참례(參禮)한다.

(3) 강 신(陸神)

제관이 먼저 분향한 다음 술을 반잔 따라주며 술잔을 받아 제단 및 당우부근에 부은후 4배를 하고 다시 새잔을 받아 제단에 올리고 일동 절을 네번하고 나서 모두 부복한다.

(4) 독 축(讀祝)

제관이 축문을 읽는 동안 제관, 집례 등은 옆드려 있다.

제관이 축문을 읽는동안 제관, 집례 등은 옆드려 있다.

(5) 현 주

제관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네번 한다.

(6) 소 지

마을 전체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대동소지를 올리고 다음에 제관, 축관, 당주 및 동민 세대주의 성명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소지를 올린다.

(7) 철 상

신전을 모두 내리고 상(床)을 치운다.

(8) 이신제(雜神祭)

東,西,南,北에 있는 잡신(雜神)에게 제례를 지낸 제물을 순서없이 갖다놓고 일동 절을 네번 한 다음 여러음식을 사방 잡신에게 떼어 던지며 “고시래”를 한다.

(9) 탁 정

제사가 끝났음을 알리기 위하여 정을 세번 친다. 이로써 동민들은 그동안 그들을 제약했던 금기에서 풀리며 언행과 마을 밖 출입이 자유롭게 된다.

(10) 음 복(飲福)

고시래를 한 후신주를 마시고 신찬을 먹는다.

(11) 여 흥(餘興)

음복 후에는 남녀노소가 함께 춤을 추며 즐기는 일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공고히 하고 결속을 다지게 된다.



정월대보름 놀이
구리시

정월대보름놀이

